임춘(林椿)의 유학사상 이해와 출처은현관(出處隱顯觀)의 특징*

엄연석**

<차 례>

1. 서론
2. 선진시대 유가철학의 출처관(出處觀)과 그 이념적 표준
3. 유학적 사유와 한대(漢代) 이래 기철학(氣哲學)으로부터의 영향
4. 중층적 출처은현관(出處隱顯觀)과 도덕적 표준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고려 무신집권시기에 불우한 생을 살았던 서하(西河) 임춘(林椿)의 유학사상과 출처은현관(出處隱顯觀)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임춘이 북송대 기철학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 하는 점과 경학사상사적 관점에서 그의 유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였다. 임춘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도덕적 수양과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233)

**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교수

이를 통한 정치적 이상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유학을 자신의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는 한대(漢代)이래 북송 성리학으로 이어지는 기철학의 여러 개념과 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주역』을 통하여 성인의 도를 이해하였다. 임춘은 은둔과 현달을 분리시키지 않고 의(義)나 도(道)를 기준으로 한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임춘의 출처은현관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은 출세와 처사, 은둔과 현달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회통적인 시각이다. 은둔과 출세를 회통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임춘의 출처은현관을 기준으로 볼 때, 그가 과거에 응시하고, 집정자에게 자천(自薦)하면서까지 관로진출을 갈망했던 것은 이론적 합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춘은 정권 담당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적 운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은둔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정신적으로 은둔과 출세를 합일시키지 못한 채 정치 세계와 산림을 배회함으로써 불우한 생을 마쳤다.

주제어: 임춘, 유학, 성리학, 기철학, 출처은현관, 은둔, 회통

1. 서론

본고는 고려 무신집권시기에 불우한 생을 살았던 서하(西河) 임춘(林椿)의 유학사상과 출처은현관(出處隱顯觀)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특정한 주제 위주로 이루어져 왔던 임춘의 학문에 관한 연구를 한 단계 심화하는 의미에서 관로(管路)를 추구하는 그의 적극적인 현실지향적인 태도를 유가철학에 기초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임춘의 출처은현관과 실천적 태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유가철학적 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의 현실지향적 태도와 유학사상 사이의 상관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선진시대 유가철학의 출처관과 그 이념적 표준, 유학적 사유의 내용, 『주역』에 대한 인식 등 몇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나아가 임춘이 한대(漢代)로부터 북송대에 이르는 기철학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 하는 점과 경학사상사적 관점에서 그의 유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임춘은 고려 중기의 문인으로서 당시 시대를 비판하면서 불교와 도교를 아우르면서도 주로 유학사상에 근거하여 자신의 실천적 경세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교화적인 측면과 현실적 폐단이라는 두 가지 가치기준에 따라 비판과 긍정을 함께 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다.[1] 나아가 현실사회의 폐단과 무질서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취할 때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학사상의 이념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당로(當路)에 있는 통치자들까지 비판하였다.

임춘은 중앙귀족 출신으로 생졸년이 분명치 않으나 활동시기를 보면 대체로 의종(毅宗) 초에 태어난 것으로 추론된다. 어린 시절 학업에 전념하여 문장으로 이름이 났으나, 1170년(의종 24)에 무신난이 발생하면서 집안이 화를 당하였다. 그는 개경에서 약 5년간 숨어 지내면서 이인로(李仁老1152-1220), 오세재(吳世才1133-1187), 이담지(李湛之)와 같은 인물과 죽림고회(竹林高會)를 결성하였다. 이후 과거에 급제하거나 관직에 있던 지인들에게 자천(自

1) 이홍종, 「高麗 武臣政權期 文人의 思想 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1, p. 118. 이홍종은 임춘의 불교관에 대하여, "그는 佛敎的으로 佛敎의 現實敎化的인 면을 높이 평가하여 儒佛合一論을 주장하였지만, 한편으로는 佛敎의 世俗化와 타락을 비판하였고, 주로 禪宗系統의 승려들과 교유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薦)하여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였다. 1180년 이후에는 이인로와 오세재가 연이어 과거에 합격했는데[2], 이때쯤 개경으로 올라와 과거를 보기도 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 뒤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장단(長湍)으로 내려가 실의(失意)와 곤궁 속에서 출사와 은둔을 하나로 보는 세계관을 지닌 채 방황하다가 생애를 마쳤다.

임춘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문학에 대한 연구는 「국순전」과 「국선생전」에 관한 연구가 있고, 시문학과 현실인식 및 사상적 경향의 관점에서 본 그의 문학, 시문학, 그리고 고문론 등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3] 본 논문의 주제와 좀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연구 성과로는 임춘의 사(士)의식과 은현론(隱顯論)을 다룬 논문[4], 거사론과 정치관의 성격을 다룬 논문[5], 은둔과 도피의 특성을 다룬 논문[6], 그리고 철학사

---

2) 『고려사(高麗史)』卷73, 志27, 選擧1.

3) 김란희, 「麴醇傳과 麴先生專의 比較硏究」,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pp. 1-58.; 윤용식, 「西河林椿文學硏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박사논문, 1993, pp. 1-186.; 尹上林, 「西河 林椿의 古文論」, 東洋古典學會, 『동양고전연구』 9, 1997, pp. 3-24.; 안현정, 「林椿 文學의 思想的 傾向 硏究」, 釜山女子大學校 석사논문, 1997, pp. 1-60.; 김윤미, 「西河 林椿의 詩文學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pp. 1-76.; 이재삼, 「西河 林椿의 詩世界 硏究」,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석사논문, 2003, pp. 1-48.

4) 손정인, 「林椿의 사의식과 은현관」,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 14집, 1998, pp. 129-130. 그는 임춘의 은현관은 "은거할 수 있는 자라야 현달할 수 있고, 현달할 수 있는 자라야 은거할 수 있다(能隱者, 能顯也, 能顯者, 能隱也)"고 하는 명제에 집약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임춘의 은현관은 유학자들의 은현관과 맥을 함께 하며 선비가 벼슬을 하는 것은 도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오직 도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특징짓고 있다.

5) 황병성, 「임춘의 거사론과 정치관의 성격」, 전남사학회, 『전남사학』 16집, 2001, pp. 97 -99.

6) 홍성표, 「임춘의 시문에 나타난 도피·은둔의 과정과 그 성격」, 경희대 대

상을 다룬 논문[7] 등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연구성과에 근거하여 임춘의 유학사상에 대한 인식을 그의 출처은현관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다음 제2장에서는 선진시대 유가철학의 출처관과 그 이념적 표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임춘의 출처은현관의 유가철학적 토대를 규명하는 일이다. 다음 제3장에서는 한대(漢代) 이래 성리학으로 이어지는 기철학의 수용과 『주역』에 대한 임춘의 이해를 그의 출처은현관의 유학적 토대가 되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제4장에서는 임춘의 중층적인 출처은현관과 도덕적 표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임춘의 유학사상의 특징을 그의 출처은현관의 견지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2. 선진시대 유가철학의 出處觀과 그 이념적 표준

선진 유가철학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이념을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군자 또는 지식인이 정치적 지위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논어(論語)』, 『맹자(孟子)』, 『주역(周易)』과 같은 선진 유가철학 경전에서 정치적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군자의 출처관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작업은 임춘이 제시하고 있는 출처에 대한 견해와 그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준 출처에 대한 그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척도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학원 원우회, 『高鳳論集』2집, 1987, pp. 16-17.

7) 임병학, 「서하 임춘의 철학사상」,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94집, 2011, pp. 123-152.

인간의 도덕적 본질을 긍정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상적 질서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진 유가철학에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도덕적 본성을 타고난 인간이 개인적인 수양을 통하여 인격을 완성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목표는 자신의 덕성을 닦는 것으로서 수기(修己) 또는 위기(爲己)의 학문으로 규정된다. 둘째는 정치적 지위에 나아가 천하국가를 다스려 도덕성이 실현되는 이상적 사회를 이룬다는 목표이다. 이러한 외적 목표는 치인지학(治人之學)이라 할 수 있다. 유가철학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합하여 수기치인(修己治人) 또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론적 실천적 이념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선진유학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지식인 또는 군자가 정치적 지위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물러나거나 은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군자의 출처진퇴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도덕적 본성에 따른 질서로서 인도(人道)라 할 수 있다. 유가철학은 한 시대를 도덕적 질서의 실현 여부를 기준으로 유도(有道)와 무도(無道)의 시대로 구분한다. 또한 특정한 시대를 유도와 무도로 구별하는 기준은 역으로 소인(小人)이 다스리느냐 아니면 군자(君子)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소인이 무력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천하를 어지럽히면 무도한 시대가 되고, 군자가 도덕과 의리로 다스려 천하를 질서 있게 하면 유도한 시대가 된다. 선진 유가 경전에서는 이처럼 특정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군자가 정치적 지위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물러나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논어』와 『맹자』에서 세상에 도덕적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군자가 정치적 지위에 나아가야 할지 숨어 있어야 할지를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있다. 공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믿음을 독실하게 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죽음을 지켜서 道를 선하게 하되,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머무르지 않는다. 천하에 질서가 있으면 정치에 나가고, 천하에 질서가 없으면 숨는다. 나라에 질서가 있는데,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나라에 질서가 없는데도 부유하고 고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8]

공자는 학문을 통하여 도덕적 수양을 함으로써 군자를 지향하되 천하와 국가의 치란을 기준으로 정치적 지위에 나아가거나 숨는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천하국가의 질서와 무질서가 개인적인 부귀빈천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곧, 천하국가가 무질서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부귀공명을 누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맹자 또한 동일하게 "옛 사람은 뜻을 얻으면 은택이 백성에게 더해지고, 뜻을 얻지 못하면 몸을 닦아 세상에 드러난다. 곤궁할 때는 홀로 그 몸을 선하게 하고, 영달하게 되면 천하를 함께 선하게 한다"[9]라고 언급하였다. 옛날의 군자는 영달하여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릴 지위에서 뜻을 얻으면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면서 천하를 함께 선하게 하는 반면, 뜻을 얻지 못하고 곤궁하면 홀로 수신하여 그 몸을 선하게 닦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공자와 맹자는 모두 천하에 도덕적 질서의 유무(有無)에 따라 군자가 천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소극적으로 물러나 있거나 하는 정치적 태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주역』에서도 덕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정치적으로 등용되지 않는 단계에서 군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도덕적 수양을 해야

---

8) 『論語』「泰伯」, "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 危邦不入, 亂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9) 『孟子』「盡心」上, "古之人 得志澤加於民 不得志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하는가를 언급한 구절이 나온다. 『주역(周易)』「건괘(乾卦)」「문언(文言)」에서는 초구효(初九爻)의 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초구효에서 "물속에 잠겨 있는 용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용의 덕을 가지고 숨어 있는 자이다. 세속에 따라 자기 지조를 바꾸지 않고, 공명을 이루려 하지 않으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어도 고민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번민하지 않으며, 즐거우면 행하고 근심스러우면 행하지 않아서 확고하여 뽑을 수 없는 것이 숨어 있는 龍이다."

공자는 「건괘(乾卦)」「문언(文言)」에서 초구효의 '잠룡(潛龍)'을 덕을 닦는 군자가 세상에 등용되지 않아 주목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번민하지 않고 지조를 바꾸거나 공명을 이루려 하지 않으며 독선기신(獨善其身)하는 의미로 설명하였다.

『주역』에는 소인이 천하에서 세력을 얻어갈 때는 은둔해야 한다는 의미의 「돈괘(遯卦)」[10]가 있다. 이 괘의 「대상전(大象傳)」에서는 "하늘 아래에 산이 있는 것이 돈괘(遯卦)의 상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소인을 멀리하고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엄숙한 태도를 취한다"[11]고 언급하였다. 정이는 이 「돈괘」에 대하여 하늘은 위에서 양으로 올라가는 반면 산은 아래에서 멈추어 있는 것으로 서로 어긋나고 격리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은둔하여 떠나는 상이 된다[12]고 하였다. 「돈괘」에서는 소인이 점차로 성장하여 정치적 지위에

---

10) 「돈괘(遯卦)」는 하늘이 위에 있고, 산이 아래 있는 괘로 두 음이 아래에서 자라나는 상을 보여주는 괘이다. 『주역』에서 음(陰)은 소인으로 상징되는 뜻이 있어서 두 음이 아래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小人이 정치적인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뜻이 된다.

11) 『周易』「遯卦」, '大象傳', "天下有山, 遯, 君子以遠小人, 不惡而嚴."

12) 『周易』「遯卦」, '彖傳', '程傳', "天在上之物, 陽性上進, 山高起之物, 形雖高起, 體乃止物, 有上陵之象而止不進, 天乃上進而去之, 下陵而上去, 是相違遯, 故爲遯去之義."

서 정국을 좌지우지할 때 군자는 은둔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 유가 경전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자가 세상을 다스려서 질서가 있느냐 아니면 소인이 다스려 어지럽게 하느냐 하는 치란(治亂)과 도(道)의 유무에 따라 정치적 지위에 나아가거나 물러나 은둔하는 출처진퇴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선진 유가철학에서 군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상의 치란과 도의 유무(有無)라는 외적인 조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출처진퇴를 일의적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맹자는 여러 역사적 인물을 사례로 들면서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정치적 지위에 나아가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는 각각의 정치적 입장을 달리했던 네 명의 성인을 언급하면서 그들 사이에 구별되는 특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맹자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혼란을 질서로 바꾸려는 군자의 능동적 의지를 읽어내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네 명의 성인을 언급하고 있다.

> 伯夷는 눈으로는 나쁜 색을 보지 못하고, 귀로는 나쁜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자기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는다.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어지러우면 물러난다. … 伊尹은 누구든 섬기면 임금이 아니고, 누구든 부리면 백성이 아니겠는가? 다스려져도 나아가고 어지러워져도 나아간다. … 柳下惠는 더러운 임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관말직도 사양하지 않는다. 정치에 나아가서는 어진 이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그 도로 하고, 버려져도 원망하지 않고 곤궁해도 번민하지 않는다. … 공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는 쌀을 씻다가 말고 출발하였으나, 노나라를 떠날 때는 '느릿느릿하구나, 내가 떠나는 것이!'라고 했으니, 부모의 나라를 떠나는 도리이다. 빨리 떠날 만하면 빨리 떠나고, 오래할 만하면 오래하고, 머물 만하면 머물고 벼슬할 만하면 벼슬했던 것은 孔子였다. 맹자가 말하기를 "백이는 성인 중에 청렴한 분이었고, 이윤은 성인 중에 책임 있는 분이었으며, 유하혜는 성

인 중에 화평한 분이었고, 공자는 성인 중에 時中했던 분이었다"고 하였다.[13]

맹자는 백이의 경우를 천하의 치란에 따라 정치적인 진퇴를 일치시켰던 사례로 언급한 반면, 이윤과 유하혜의 경우를 세상이 다스려지건 어지러워지건 간에 정치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해야 하는 관점에 섰던 대표적인 성인으로 규정하였다. 맹자는 성인을 '청(淸)', '임(任)', '화(和)', '시(時)'로 구분하여 세상의 치란에 대응하여 취했던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구별하였다. 특히 맹자는 청렴함으로 상징되는 백이와 대립되는 성인 상으로 이윤을 책임감으로 상징되는 성인으로 규정하였다. 성인의 유형을 구별하면서 제기한 맹자의 출처관은 외적인 한계로서 운명적 요인과 내적인 자율로서 성취적 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백이가 시대적 여건이라는 운명적 요인에 따라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견자(狷者)적인 성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윤은 내적인 도덕적 자율성에 따라 적극적 실천을 행하는 성취적 동기를 따르는 광자(狂者)적 성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견지하는 도덕적 이념은 결코 다르지 않아 도(道) 또는 의(義)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이들 여러 부류의 성인들은 정치적 지위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데 있어서 모두 유가적인 도덕적 질서로서 도(道)와 의(義)를 궁극적인 행동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유가철학에서 천하국가에 질서와 도가 있을 때 군자가 세상에 나아가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당연

13) 『孟子』「萬章」下-1, "伯夷 目不視惡色 耳不聽惡聲 非其君不事 非其民不使 治則進 亂則退. … 伊尹 曰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 … 柳下惠 不羞汙君 不辭小官 進不隱賢 必以其道 遺佚而不怨 阨窮而不憫. … 孔子之去齊 接淅而行 去魯 曰遲遲 吾行也 去父母國之道也 可以速則速 可以久則久 可以處則處 可以仕則仕 孔子也."

한 일이다. 하지만, 반대로 천하에 질서와 도가 없을 때에도 물러나 은거하는 길과 함께 반대로 '혼란으로부터 질서와 도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정치적 지위에 나아가는 두 갈래 길이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진 유가철학의 출처관은 그대로 임춘이 제시한 출처관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유학적 사유와 한대(漢代) 이후 기철학(氣哲學)으로부터의 영향

앞 장에서는 선진 유가철학에서 언급하는 출처관의 내용과 특징을 『논어』, 『맹자』, 그리고 『주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학적 소양을 닦는 데 학문적 목표를 두었던 임춘은 한대(漢代) 이래의 기론(氣論)을 중심으로 하는 장재의 우주본체론적 개념을 구사하는 등 북송대 기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임춘이 유학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먼저 고찰하고 나서, 그가 기철학으로부터 어떠한 학문적 영향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임춘은 『주역』과 관련한 견해를 여러 글들에서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 『주역』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은 『주역』을 통하여 성리학의 우주본체론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춘의 『주역』에 관한 이해가 그의 학문에 어떠한 특성을 부여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임춘은 도(道)를 흠모하는 선비로 자처하였는데, 「오랑중(吳郎中)에게 올리는 계(啓)」에서 어진 선비가 지녀야 할 유가적인 덕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삼가 생각건대, 어진 선비는 가난하고 곤궁한 데 처하여 실로 벼슬이 없어도 스스로 귀하고, 대인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道德이며, 마땅히 禮로 처하고 반드시 謙遜해야 합니다. … 차라리 유학자로서 몸을 그르칠지언정, 門蔭에 힘입어 영달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도모하는 것이 지극히 졸렬하여 세상에 비웃지 않는 이가 없더라도 이에 치욕을 참고 부끄러움을 감싸고서 효를 행하는 것으로 이름을 날리기 바랍니다. … 거듭 생각하면, 저는 義를 사모하는 것이 깊었습니다.[14]

여기에서 임춘은 어진 선비는 벼슬이 없어도 고귀한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임춘의 주장은 맹자의 천작인작론(天爵人爵論)에 근거를 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천작(天爵)이 있고, 인작(人爵)이 있다. 인의충신(仁義忠信)과 선(善)을 좋아하여 게을리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천작'이고, 공경대부(公卿大夫)는 '인작'이다"[15]라고 하였다. 맹자에서 천작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타고난 인의충신의 도덕적 본성을 말한다면, 인작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경대부와 같은 정치적 지위를 말한다. 임춘이 벼슬이 없어도 어진 선비의 고귀함을 주장한 것은 바로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도덕적 본성의 고귀함을 말하는 것이다.[16]

임춘은 선대 가문의 공덕에 따른 문음(門蔭)으로 관로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식인의 도덕적 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대인(大人)이 중시해야

---

14) 『西河集』「上吳郎中啓」, "竊惟賢士之方處於貧窮, 固無爵而自貴. 大人之所尊者道德, 宜以禮而必謙. … 寧誤身於儒冠, 恥藉榮於門蔭. 謀之至拙, 世莫不嗤, 方忍辱以包羞, 願揚名於爲孝. … 重念某慕義無窮."

15) 『孟子』「告子」上-16, "孟子曰 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 樂善不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

16) 주희는 "천작은 德과 義로 존귀할 만한 것으로 저절로 그러한 본래적인 고귀함이다(天爵者 德義可尊 自然之貴也))"라고 하여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적인 고귀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으로 도덕(道德)과 예(禮), 그리고 겸손(謙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그는 스스로에 대해 의(義)를 끝없이 사모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임춘이 유가적 도덕 이념과 수양의 여러 덕목을 자신의 학문적 원리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춘은 당시의 대부(大夫)들을 보면 원대한 뜻을 품은 사람이 적고 단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부귀한 것으로 여길 뿐이다[17]라고 하여 당시 사대부들이 유학의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치중하지 않고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는 성인의 도(道)를 잊지 않기 위하여 틈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한다[18]고 하여 유학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늘 잊지 않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그는 "본성이 광달하여 대도(大道)를 추구하기를 좋아하여 세속에서 응용하여 문장을 짓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다만 젊었을 때에, 부형의 강압에 못 이겨 문장을 짓는 것을 피하지 못했으나, 어려움을 만난 뒤로부터 그것을 그만둔 지가 오래되었다[19]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태도로 볼 때, 임춘은 과거를 통하여 관로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성인의 도를 통하여 유학 본연의 목적으로서 덕을 닦는 공부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임춘은 '기(氣)' 개념을 중심으로 한 우주론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장재를 중심으로 하는 북송대 기철학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그가 이미 북송대 기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 이론에 영향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그가 기(氣)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리학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

17) 『西河集』卷4, 「與皇甫若水書」, "僕略觀當世士大夫, 志於遠且大者甚少, 但以科第爲富貴之資而已."

18) 같은 책, 같은 곳, "其時時讀書, 唯欲不忘吾聖人之道耳."

19) 『西河集』卷4, 「與趙亦樂書」, "僕性本曠達, 好問大道, 不樂爲世俗應用文字. 但少爲父兄所强, 未免作之, 自遭難, 廢而不爲者久矣."

는가 하는 점을 그의 기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임춘은 기를 문장을 짓는 근본 토대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나[20], 기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기(氣)에 의지하여 살고 기는 호흡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자오(子午)에 따르고 음양에 순응하여 출입하여 그친 적이 없다."[21] 이처럼 기는 사람이 호흡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견해의 연장선에서 임춘은 북송대 장재의 기철학에 영향을 받아 기(氣)를 사물을 낳는 우주론적인 근원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이 우주에서 태어난 발생론적 과정을 기, 음양오행 개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저는 일찍이 조화의 용광로에서 수없이 단련된 정밀하고 강한 氣를 받고, 陰陽으로 그 바탕을 삼고, 五行으로 그 몸을 이루었으며 28수 별자리의 理數가 그 가슴에 나열된 후에 영명함을 품부하여 태어나 먼저 태어나 사물을 이롭게 하였다.[22]

---

20) 임춘은 "문장은 기를 위주로 삼는 것으로, 중심에서 움직여서 말로 표현되는 것이다(文以氣爲主, 動於中而形於言: 「上按部學士啓」『西河集』卷6)"; "무릇 문장을 짓는 데는 기를 위주로 한다(凡作文, 以氣爲主.: 「與皇甫若水書上」『西河集』卷4)"; "문장이 어렵다는 것은 오래되었으나,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개 그 지극히 강한 기가 가운데 충만하여 얼굴에 넘치고 언어로 드러나는데도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다. 실로 그 기를 기를 수 있으면 비록 붓을 잡고 배우지 않는다고 해도 문장은 더욱 저절로 기이할 것이다(文之難尙矣, 而不可學而能也. 蓋其至剛之氣, 充乎中而溢乎貌, 發乎言而不自知者爾. 苟能養其氣, 雖未嘗執筆以學之, 文益自奇矣.: 「上李學士書」『西河集』卷4)"고 하여 문장을 짓는 것은 기를 위주로 삼는다고 주장하였다.

21) 『西河集』卷5, 「浮屠可逸名字序」, "人恃氣以生, 氣恃息以存焉. 隨子午順陰陽而出入, 未始有止也."

22) 『西河集』卷4, 「上李學士知命書」, "僕嘗於造化爐鎚間, 受百鍊精剛之氣, 而陰陽資其質, 五行成其體, 二十八宿羅其胸襟, 然後稟靈以生, 首出利物焉."

임춘은 자신을 예로 들어 인간은 우주조화의 기(氣)를 받아 음양과 오행으로 육체를 이루고 여기에 영명한 정신을 품부받아 만물에 앞서 태어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주생성론의 입장에서 인간은 하나의 기로부터 음양과 오행으로의 분화를 통해 육체를 이루고 여기에 영명한 정신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기를 근원으로 하는 이러한 우주발생론적 해석은 주자가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에서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변화생성하고 기(氣)로써 형체를 이루고 리(理) 또한 거기에 부여하니 이것은 '명령(命令)'과 같다"[23]라고 한 것과 동일한 이해 패턴이다. 임춘은 천지만물의 근원을 기(氣)로 간주하고 여기에 영명성을 부여 받은 것으로 인간 존재를 설명하면서, '기(氣)'를 모든 사물을 낳는 근거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성리학에서처럼 본체론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장재의 기철학에서 기의 본체를 뜻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태허(太虛)'라는 개념을 써서 음양의 기가 태허로부터 와서 만물이 이로부터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장재가 『정몽(正蒙)』 「태화(大和)」편에서 언급한 '태화(大和)'와 '태허(太虛)' 개념을 사용하여 만물이 생성되는 근원으로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지극한 조화[大和]'는 사물을 쪄내는 데 멀고 가까운 틈이 없는데, 유독 그 땅에서 만큼은 서직이 자라지 않으니 실로 천지 사이에 궁벽한 골짜기입니다. 鄒衍이라는 자가 그 사이에서 音律을 불어내어 따뜻하게 하고 나서 한 점의 조화로운 氣가 太虛로부터 나와서 만물이 그로부터 생명을 얻어 화락하게 봄이 되었습니다.[24]

---

23) 『中庸章句』1章, 朱注,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猶命令也."

24) 『西河集』卷4, 「上刑部李侍郎書」, "大和蒸物, 無間遠近, 而獨其地不生黍, 固天地間一窮谷也. 有鄒衍者, 吹律於其間而暖之, 然後一點和氣從大虛中來, 物得以生而熙熙然春矣." 임춘은 이 구절에서 '大和'와 '太虛' 개념을 함께

태화(大和)와 태허(太虛)는 장재의 기철학에서 각각 현상의 지극한 조화와 근원적인 본체를 지칭하는 핵심 개념이다. 임춘이 이들 개념을 운용하여 우주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장재의 기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가 북송대 기철학에 대하여 일정하게 공부하고 이를 자신의 학문적 특성을 이루는 이론적 체계에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춘은 장재의 기철학으로부터 그의 우주론적 견해를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주역』으로부터도 우주론적 이론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 「고려서하임공행장(高麗西河林公行狀)」에 따르면 "공은 어려서 영특하였고, 예닐곱 살 때에는 백가서를 두루 읽으면서 정밀하고 깊은 뜻을 깨달았다. 어른이 되어서는 『성리종요(性理宗要)』와 『삼재상수(三才象數)』 등의 책을 저술하였다"[25]라고 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임춘이 『성리종요(性理宗要)』와 『삼재상수(三才象數)』를 저술하였다고 하나, 지금 전해지지 않아서 그 실상을 살펴볼 수 없다.

그러면 임춘이 『주역』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는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주역』「설괘전(說卦傳)」, 「계사전(繫辭傳)」 등의 내용이 유학적 실천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원용되고 있다. 그는 권돈례에게 조정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 또한 은둔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바로

씀으로써 장재가 『정몽』에서 말하는 기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임춘의 기에 관한 사고를 한대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대 사상에서 기 개념이 본체론적 근원으로 언급되기보다는 발생론적 현상의 측면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고, 그 근원은 태허 개념보다는 '太始', '太一', '太素' 등의 개념이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임춘의 기에 대한 이해는 한대의 기 개념과는 일정하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25) 『西河集』「高麗西河林公行狀」, "公幼而英穎, 六七世遍讀百家, 悟祥精深, 及長述性理宗要, 三才象數等書."

궁리진성(窮理盡性)하는 오묘함으로 그것을 체득하여 행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26]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궁리진성'은 『주역』「계사전」에 나오는 말로서 성인이 천지와 음양 강유에 의지하여 역을 지음으로써 사물과 본성의 이치를 궁구하고 극진히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27] 임춘이 궁리진성이란 『주역』 구절에 주목한 것은 바로 자연과 인사의 이치와 본성을 주로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성리학적 관심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춘은 「정시랑의 서시(敍詩)에 차운함」이란 시에서는 「태괘(泰卦)」와 「비괘(否卦)」의 이치를 인용하여 "운명이 머리를 짓누르는 것 슬프고, 평생토록 이 부역에 고생하는구나. 비록 하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지만, 백년 기간이 마치 지나는 객과 같이 빨리 지났다. 비색함과 태평함은 각각 이치가 있으니, 어찌 시책으로 점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것은 정시랑이 평생 동안 곤경을 당하며 산 인생의 괴로움이 덧없이 지나간 것을 「비괘」와 「태괘」의 이치는 점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노래한 것이다. 그는 『주역』의 「태괘」와 「비괘」의 변화의 필연성을 인생 운명의 필연성과 연관하여 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춘은 유학의 도덕적 수양과 이를 통한 정치적 이상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유학을 자신의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과거에 적극적으로 응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모두 실패하고 유학의 도덕적 이념을 공부하는 것에 목표를 두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북송 성리학의 기(氣) 철학의 여러

---

26) 『西河集』卷4, 「答同前書」, "斯乃窮理盡性之妙, 其體而行之者, 非閣下而誰耶?"

27) 『周易』「說卦傳」第1章, "昔者, 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蓍, 參天兩地而倚數. 觀變於陰陽而立卦, 發揮於剛柔而生爻.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以至於命."

개념과 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주역』을 통하여 성인의 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임춘은 유학을 자신의 학문의 본령으로 삼으면서 한대 이래 이어져 온 기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장재의 성리학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역』을 중심으로 사유한 이론적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임춘의 이러한 선진유학과 『주역』, 그리고 장재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철학에 대한 이해는 그의 경학사상사적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아울러 그의 출처은현관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그의 출처은현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4. 중층적 출처은현관(出處隱顯觀)과 도덕적 표준

이 장에서는 임춘이 적극적인 현실지향적 의지를 가지고 관직에 나아가고자 했던 유가철학적 토대로서 도덕적 이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그가 출처은현(出處隱顯)에 대하여 입론(立論)하는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어서 말년에 끊임없이 현실참여 의식을 가지고 그 방법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한계와 은거의 의미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임춘은 끊임없이 현실지향적 의지를 가지고 과거시험을 통하여 정치적 지위에 나아가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 이러한 그의 도덕적 정치적 의식은 도가 실현되지 않은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도학자들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중심으로 하는 도학적 학문관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춘이 과거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 도(道)의 실현과 무관하게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만 가진 것이

라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서(書), 기(記), 계(啓) 등의 글에서 유가 철학적 도덕 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유학의 도덕적 이상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춘이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취지는 개인적인 삶의 안정과 가문의 명예를 추구한 측면도 있으나, 그의 유가 철학적 도덕이념의 실현이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임춘이 유가적 도덕 이념에 대한 수양과 실천, 그리고 정치적 지위를 가진 통치자의 도덕적 자세, 참된 명유(名儒)의 의미 등에 대하여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임춘은 무엇보다도 유가적 도덕이념으로서 덕(德)과 도(道), 인(仁)과 의(義), 지(智)와 용(勇)을 세상을 다스리는 도덕적 표준인 동시에 은둔 시에 보존해야 하는 도덕적 덕목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이들 덕목을 칼의 각 부분으로 비유하면서 출처진퇴(出處進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德과 道를 칼자루로 삼고, 仁과 義를 칼끝으로 삼으며, 智와 勇을 칼날로 삼고서, 곧고 신실한 언행으로 그것을 감싸고 빼어난 문장으로 꾸며서 이것을 궤에 넣어 간직하는 것은 그 몸을 보호하여 밝게 하는 방법이며, 그것을 잡고서 행하는 것은 시대에 부응하여 그것을 쓸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28]

여기에서 임춘은 시대의 치란(治亂)에 따라 출처진퇴하면서 도덕(道德)과 인의(仁義)와 지용(智勇), 그리고 언행에 있어서 신(信)을 표준으로 삼아 명철보신하기도 하고 시대의 도덕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들을 칼과 같이 쓸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임춘은 출처은현의 상황에서 유가철학의 핵심 도덕 이념과

---

28) 『西河集』卷4, 「上李學士一知命一書」, "以德道爲鋏, 仁義爲鋒, 以智勇爲鍔. 包之以言行之鯁亮, 飾之以文章之英麗, 柙而藏之, 所以保其身而明哲也. 持而行之, 所以應其時而能用也."

덕목을 버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유가철학의 도덕을 적극적인 현실참여 의지를 가지면서도 보다 근원적인 목표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가치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임춘은 당시 정치적 지위에서 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 인의(仁義)를 외치면서도 도덕적 실천을 행하지 못하는 폐해를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금 몸에는 의관을 차려 입고 인의(仁義)를 말하면서 '나는 공자의 무리이다'고 하면서, 천천히 살펴보면 그 도리에 의지하여 불의(不義)를 이루어가고, 종종 어리석고 비루한 백성들이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니, 이것은 본디 시서(詩書)를 써서 무덤을 파내는 것이니 우리 성인에게 죄를 얻는 것이 또한 크다."[29] 여기에서 임춘은 유학적 이념을 마음에 가지고 있더라도 백성들에게 의롭지 못한 일과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은 성인에게 죄를 얻는 것으로 정치적 지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언급하였다.

임춘은 또한 세속에서 말하는 명유(名儒)와 자신이 생각하는 명유(名儒)의 의미를 구별함으로써 진정한 유학자가 어떤 덕목을 가지는 존재인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대개 세속에서 말하는 '名儒'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 공교롭고 과거에 합격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실로 이와 같이 하여 명유가 된다면 명유의 數多함이 얼마나 번거롭겠는가? 요즈음 시대에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적었으니, 賈誼, 司馬遷, 韓愈, 柳子厚 등과 같은 무리가 이들이다. 한당대의 盛世에 그 업적이 더욱 밝게 드러난 자로서 탁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들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근래에 또 구양수가 있어서 古文을 숭상하여 제자들을 배척하여 요즈음의 韓

29) 같은 책, 같은 곳, 「送李眉叟序」, "今夫身衣冠口仁義而曰, '我孔氏徒也.' 徐而視則資其道以濟不義, 往往爲愚陋恒民所不忍爲者, 是固以詩書發塚, 而得罪於吾聖人也, 亦大矣."

愈라고 일컬어지기에 이르렀다. 왕안석은 삼황오제의 글을 조술하여 이전 聖王의 도를 밝혔고, 蘇軾은 백가의 글을 섭렵하여 저작의 근원적 의미를 궁구하였으니, 또한 참된 명유였다. 명유의 내실이 없으면서 그 이름을 훔치는 사람은 우리 道의 죄인이다.[30]

이 글에서 임춘은 진정한 명성을 가진 유학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먼저 참된 명유는 세속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문장을 솜씨 있게 지어 과거에 합격하는 것처럼 과거지학(科擧之學)을 추구하는 학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명유(名儒)는 고문을 숭상한다든가, 삼황오제(三皇五帝)의 글을 통하여 성왕의 도를 밝히는 자이며, 또한 백가(百家)의 글에서 말하는 근원적 의미를 추구하는 학자를 뜻하였다.

임춘은 이러한 명유의 실상이 없으면서 '명유'라는 이름만 훔치는 사람은 유학의 도(道)에 죄인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과거학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명유가 되는 길에서 벗어난 길인 반면, 성왕의 도를 밝히고 백가의 글의 근원적 의미를 추구하는 데서 유학의 도의 본질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 참된 명유이다. 그는 정치적 지위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을 넘어 유학의 보다 근본적인 이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인 출처진퇴의 표준으로 삼았다.

그러면 임춘이 '출처은현(出處隱顯)'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일재기(逸齋記)」에서 자신의 출처은현관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은

30) 같은 책, 卷3, 「答靈師書」, "夫世所謂名儒者, 不過工章句取科第爾. 果如是而爲名儒, 則何擾擾焉名儒之多耶? 不唯今世所不見, 雖古亦少. 若賈誼, 司馬遷, 韓愈, 柳子厚輩, 是也. 以漢, 唐之盛, 其事業之尤著顯, 卓然可見者止此而已. 近古又有歐陽永叔, 尙古文以排諧子. 至號今之韓愈, 王介甫祖述墳典, 明先聖之道. 蘇子瞻牢籠百氏, 以窮著作之源, 亦眞名儒也. 無名儒之實而竊其名者, 亦吾道之罪人也."

둔(隱遁)과 현달(顯達)은 두 가지 별개의 사태가 아니며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출처은현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 참된 은둔자라야 세상에 드러날 수 있으며, 참되게 드러나는 자라야 은둔할 수 있다. 대개 벼슬을 쓸모없이 생각하고 부귀를 쭉정이나 술지게미로 생각하며 흰 돌을 베게삼고 맑은 물에 양치하는 사람은 은벽하고 괴이한 것을 찾고 행할 뿐이니 현달할 수 있겠는가? 공명에 얽매이고 벼슬에 골몰하며 머리에는 익선관 허리에는 관인을 차고 권세와 이익을 분주히 따를 뿐이니, 은둔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구차히 영합하지 않고, 구차히 남과 달리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맞게 물러나 백이가 아니면 숙제가 되고, 시의에 맞게 나아가 皐陶가 아니면 夔가 될 것이니, 浮沈하고 오고가는 데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음이 없을 때 비로소 참되게 드러나고 숨을 수 있다. 게다가 은둔하더라도 道와 함께 숨고, 드러날 때도 道와 함께 행한다.[31]

임준은 첫 구절에서 세상에서 숨는다는 '은(隱)'과 세상에 나선다는 '현(顯)'의 뜻이 서로 절연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은둔과 현달은 서로에게 조건이 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세상에 현달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지 않는 은둔은 진정한 의미의 은둔이 아니며, 역으로 은둔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지 않은 현달은 진정한 현달이 아니다. 이러한 수사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은둔과 현달의 조건이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은둔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 데 이 두 상황을 결정해 주는 기준은 바로 도(道)라는 것이다.

---

31) 『西河集』卷5,「逸齋記」, "眞隱者能顯也, 眞顯者能隱也. 凡涕唾爵位, 粃糠芻豢, 枕白石漱清流者, 索隱行怪而已, 於顯能之耶? 桎梏名撿, 汨溺朝市, 首蟬冠腰龜印者, 奔勢循利而已, 於隱能之耶? 必有不苟同不苟異, 時乎退, 不夷而齊之, 時乎進, 不皐而夔之, 一浮沈一往來, 無適而不自得者乃眞隱顯, 而隱與道俱藏。顯與道俱行也."

임춘이 말하고자 한 취지는 '도(道)를 실현할 수 있을 때 정치적 지위에 나아가고, 도를 실현할 수 없을 때 은둔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춘은 도가의 은자들처럼 벼슬과 부귀를 하찮게 여기고 색은행괴(索隱行怪)하면서 은둔으로 일관하거나, 묵자처럼 명예와 관로(官路)에만 골몰하면서 공명을 이루는 데에만 빠져 있는 자들을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서 진정한 은자나 현달자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은둔과 현달을 격리시키지 않고 의(義)나 도(道)를 기준으로 한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공자가 출처에 대하여 취했던 태도와 일치한다. 공자는 『논어』「이인(里仁)」에서 "군자는 천하에 대해서 가능한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이 오직 의(義)만을 따른다"[32]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공자는 어떠한 상황에서 미리 고정하여 옳다 또는 옳지 않다, 가능하다 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 없이 오직 보편타당한 의(義)에 따라 행동의 출처진퇴를 결정할 뿐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의(義)를 기준으로 하여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자유롭게 하여 시의(時宜)를 얻는 것을 성인의 상징으로 평가한다. 공자에게서 출처진퇴가 의(義)에 속하는 행동양식인 것과 같이 임춘에 있어서 출처은현은 근원적인 도덕적 의리에 근거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의(時宜)를 행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임춘은 권돈례(權敦禮)와 같이 고절(高節)을 지키는 사람이 산림에 은둔해 있으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에 나아가 궁리진성의 오묘함을 체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조정에 나아가는 것과 산림에 은둔해 있는 것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32) 『論語』「里仁」4-10,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 지금 생각이 깊은 사람이 '한 시대의 안정과 위험은 공의 출처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깊이 물러나 있으면서 실로 고절만 온전히 지키고 산림의 계곡에서 조용히 유유자적한다면 경세를 맡길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옛날에 辛謐이 말하기를 '화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을 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윽한 마음과 극진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남의 뜻과 합할 따름이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어진 사람은 조정에 있어도 산림 가운데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窮理盡性하는 오묘함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은 공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33]

임춘은 앞서 기본적으로 시대적 상황과 도를 기준으로 하여 출처은현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의 단락에서 그는 화란이 닥칠 수 있는 혼란 상황에서도 조정에 나아가 다스려야 한다고 권돈례에게 권고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시대적으로 무질서할 때에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질서를 실현하고자 했던 이윤의 책임의식을 권돈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또 다른 출처은현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춘은 무질서한 시대에 조정에 나아가더라도 화란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을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단계의 출처은현관을 제시하였다. 그는 무질서한 세상에 조정에 나아가 정치를 행할 때는 명심지취(冥心至趣)로 스스로 남과 뜻을 합하고, 궁리진성의 오묘함을 체득하고 실천한다면 조정에 있는 것이 산림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세상에 나가더라도 은둔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의 출처은현관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임춘의 출처은현관의 최고 단계는

---

33) 『西河集』卷4, 「答同前書」, "今悠悠者云, '一時安危。係閣下之出處' 深存挹退, 苟全高節, 一丘一壑, 以遂從容之適, 則經濟之寄, 復無其人矣. 昔辛謐有言, '不嬰於禍亂者, 非爲避之, 但冥心至趣,自與志會耳.' 以此知賢者之處乎廟堂也無異於山林間矣. 斯乃窮理盡性之妙, 其體而行之者, 非閣下而誰耶?"

출세와 처사, 은둔과 현달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세하고 현달하여 조정에 나아가 있더라도 정신적인 경계가 은둔하고 있는 상태로 있거나, 처사로 은둔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적 경계가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으면 조정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처해 있는 공간적인 위치는 조정과 산림으로 구별되더라도 '현달'과 '은둔'은 정신적 경지에서 공존하여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합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춘이 이렇게 은둔과 현달의 차원을 보다 높은 경지에서 관조하는 것은 고려 말기의 원천석(元天錫)의 '은일'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원천석은 「국화를 읊은 시(詠菊)」에서 국화에서 나오는 한향(寒香)과 청향(淸香)을 함께 하면서 국화를 은일 속의 삶의 동반자를 간주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김원준은 "한사(寒士)의 청일(淸逸)한 정신은 국화의 한향(寒香)과 청향(淸香)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즈음 운곡의 삶은 새삼 은일적 삶이라 칭할 이유가 없다. 산천과 함께 깨끗하게 살고 운월(雲月)과 벗 삼아 지내는 삶 자체가 이미 자연과의 합일이기 때문에 은일이란 말이 오히려 생경하게 다가온다"[34]고 평가하였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천석에 있어서는 은일한 삶 자체가 일상적인 것으로 전환되면서 은일을 초월하는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임춘이 언급하는 출처은현은 바로 조정에 나아가는 것이 은둔하는 것이고, 은둔하는 것이 바로 조정에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임춘의 출처은현에 대한 해석은 첫째 소극적 해석, 적극적 해석, 그리고 회통적 해석 단계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은둔과 출세를 회통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임춘의 출처은현관을 기

34) 김원준, 「영물시를 통해 본 원천석의 의식적 면모」,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55호, 2009, p. 227.

준으로 볼 때, 그가 과거에 응시하고, 집정자에게 자천(自薦)하면서까지 관로진출을 갈망했던 사실은 이론적 합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춘은 당시 정권 담당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적 운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은둔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은둔과 출세를 합일시키지 못한 채 정치 세계와 산림을 배회했던 불우한 은둔으로 생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고려 무신집권시기에 불우한 생을 살았던 서하(西河) 임춘(林椿)의 유학사상에 대한 인식을 그의 출처은현관(出處隱顯觀)과 연관하여 고찰하였다. 다시 말하면 임춘의 출처은현관과 실천적 태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유가철학적 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의 현실지향적 태도와 유학사상 사이의 상관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선진시대 유가철학의 출처관과 그 이념적 표준, 유학적 사유의 내용, 『주역』에 대한 인식, 북송대 성리학 및 기철학의 영향,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가지는 경학사상사적 특성을 해명해 보았다.

임춘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도덕적 수양과 이를 통한 정치적 이상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유학을 자신의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과거에 적극적으로 응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모두 실패하고 유학의 도덕적 이념을 공부하는 것에 목표를 두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북송대 장재를 중심으로 하는 기철학의 여러 개념과 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주역』을 통하여 성인의 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임춘은 은둔과 현달을 격리시키지 않고 의(義)나 도(道)를 기준으로 한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무질서한

시대에 조정에 나아가더라도 화란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을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단계의 출처은현관을 제시하였다. 그는 무질서한 세상에 조정에 나아가 정치를 행할 때는 명심지취(冥心至趣)로 스스로 남과 뜻을 합하고, 궁리진성의 오묘함을 체득하고 실천한다면 조정에 있는 것이 산림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임춘은 세상에 나가더라도 은둔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의 출처은현관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임춘의 출처은현관의 최고 단계는 출세와 처사, 은둔과 현달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임춘이 언급하는 출처은현은 바로 조정에 나아가는 것이 은둔하는 것이고, 은둔하는 것이 바로 조정에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임춘의 출처은현에 대한 해석은 소극적 해석, 적극적 해석, 그리고 회통적 해석 단계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은둔과 출세를 회통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임춘의 출처은현관을 기준으로 볼 때, 그가 과거에 응시하고, 집정자에게 자천(自薦)하면서까지 관로 진출을 갈망했던 사실은 이론적 합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춘은 당시 정권 담당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적 운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은둔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은둔과 출세를 합일시키지 못한 채 정치 세계와 산림을 배회했던 불우한 은둔으로 생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論語』. 『孟子』. 『周易』. 『漢文大系』1卷.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94.
朱熹. 『中庸章句』.
『高麗史』.

林椿.『西河集』

2. 논문

김란희,「麴醇傳과 麴先生專의 比較硏究」,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pp. 1-58.
김원준,「영물시를 통해 본 원천석의 의식적 면모」,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제55호, 2009, pp.201-232.
김윤미,「西河 林椿의 詩文學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pp. 1-76.
손정인,「林椿의 사의식과 은현관」, 동방한문학회,『동방한문학』14집, 1998, pp. 107-130.
안현정,「林椿 文學의 思想的 傾向 硏究」, 釜山女子大學校 석사논문, 1997, pp. 1-60.
윤용식,「西河林椿文學硏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박사논문, 1993, pp. 1-186.
尹上林,「西河 林椿의 古文論」, 동양고전학회,『동양고전연구』9, 1997, pp. 3-24.
이재삼,「西河 林椿의 詩世界 硏究」,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석사논문, 2003, pp. 1-48.
이흥종,「高麗 武臣政權期 文人의 思想 硏究」, 단국대 박사논문, 1991, pp. 1-227.
임병학,「서하 임춘의 철학사상」, 연세대 인문학연구원,『인문과학』94집, 2011, pp. 123-152.
홍성표,「임춘의 시문에 나타난 도피·은둔의 과정과 그 성격」, 경희대 대학원 원우회,『高鳳論集』2집, 1987, pp. 25-41.
황병성,「임춘의 거사론과 정치관의 성격」, 전남사학회,『전남사학』16집, 2001, pp. 77- 100.

3. 단행본

황병성,『고려무인정권기 문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손정인,『고려중기한시연구』, 문창사, 대구, 2002.
이동철,『이규보·임춘 시의 연구』, 형설, 1993.

[Abstract]

Lim Chun's Perception about Thought of Confucianism and His Opinion of the Public Service and Retired & Seclusion and Eminence

Eom, Yeon-Seok

This essay tried to investigate Seo-Ha Lim Chun's perception about thought of Confucianism with regard to his opinion of the public service and retired & seclusion and eminence. And here writer examined how Lim Chun's thought had been influenced from Confucianism of North Song Dynasty and how his recognition and attitude of Confucianism was characterized in viewpoint of history of thought of Confucian classics. Lim Chun fundamentally made foundation in his studies of Confucianism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ment of moral culture of Confucianism and political ideal from this. He moreover was influenced several concepts and theories of Chi-Philosophy氣哲學 in Neo-Confucianism and understanded the way of saint through the Book of Changes. Lim Chun comprehended seclusion and eminence隱顯 as one continuous process not being isolated according to criterion of righteousness or way. Besides Lim Chun directly suggested opinion of the public service and retired & seclusion and eminence of novel phase by making mention of method through which one is not bound by disaster even if he is nominated to public office or went into Royal Court in chaotic period. In other words, ultimate phase of Lim Chun's opinion of the public service and retired & seclusion and eminence consists in commensurable or continuous insight that success and position out of office, seclusion and eminence finally are quite the same. Seen from Lim Chun's opinion of the public service and retired & seclusion and eminence, which regarded seclusion and eminence as the continuous, the fact that he took the state examination and was anxious

to get into office positions advances to such an extent recommending himself to interrex or bureaucrat can be estimated as having theoretical legitimacy.

Key words: Lim Chun, Confucianism, Neo-Confucianism, Chi-Philosophy, the public service and retired, seclusion and eminence, continuousness.

엄연석
소속: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주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길10 금호어울림아파트 102동 401호
전화번호: 010-6808-4460
전자우편: yseom0@lycos.co.kr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3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